

# 안팎構造－韓國建築空間의 構造主義的 解析\*

李熙奉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1. 目的

언어는 실재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공간(space)'이라는 말은 서양세계의 언어이며 그 쪽에서 진화되어온 공간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언어가 없었으므로 전혀 다른 실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건축창작에서 사용되는 서양에서 비롯된 공간 이론과 용어는 혼용되어 혼란을 초래한다. 이에 한국 건축공간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언어-물질(물적형태)-행태의 일관된 규칙을 발견,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여 현재의 창작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 2. 方法

우리의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구조주의 방법을 통하여 사고체계와 연관시킨다. 특히 인간이 세상의 물질을 조직하는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언어 분류를 사용하는 것은 인지 인류학의 도움을 받는다(Tyler 1969 : 3, 11). 안정

된 규칙을 발견해내는 세부 방법은 동형화(isomorphism)를 사용한다.

## 3. 概念定義

### (1) 構造主義에서의 構造

여러 학문분야에서 복잡한 표면적인 현상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들어나지 않는 틀을 찾아 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예 : 생물학, 언어학, 민속학 등).<sup>1)</sup> 인류학자 Levi-Strauss는 언어학에서의 기호분석 방법으로 문화현상을 설명함으로써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1967 : 34, 46).

구조주의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 '전체성(wholeness)'을 띠는 안정된 규칙을 상정한다. 이 규칙은 표면의 배후에 있는 것

\* 이 논문은 필자의 "한국건축에 기호학적 구조의 적용" (1978,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주요부분을 재 정리 발전시킨 것임.

1)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언어학은 기호간에 유지되는 가치와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주의라는 큰 틀 속에 묶을 수 있게 되었다(김방한 1975 : 62-63).

의 설명적 모델이 된다. (Maranda, 330-31). 둘째, 이 규칙을 '영속화'한다는 점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활동해 나가면서 유지시켜주고 안정시켜 준다는 것이다. 셋째, 여러 문화요소에 '변형(transformation)'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고 구조는 언어로 나타나고 이는 친족체계, 가족, 복식 등에 나타나며, 이 공통 집합을 대응의 방법으로 찾아낸다(Leach 1970: 52). 넷째, 구조는 표면보다는 인간 집단의 '무의식'의 심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Rossi 1974: 11).<sup>2)</sup>

본 논문에서는 思考構造를 空間構造와 대응시키는 것이 주된 일이다. 역사학은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 원인을 해석하는 것인 반면 구조주의는 시간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틀'을 찾으므로, 서로 반대의 작업으로 보이나 변화하지 않는 것(또는 틀의 변형)을 찾으면 변화하는 부분의 설명이 쉬워지므로 역사학을 보강할 것이다.

또한 건축역사학이 설계에 도움을 주려면, 이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이희봉 1992: 246-48). 한국건축 현재의 특수성인 단절된 전통을 계승을 하려면 변하지 않는 틀을 찾아내어 이론화 하여 현재의 상황 변화에 대응시켜야 할 것이다.

## (2) 對待的 認知構造로서의 陰陽

한 문화집단이 세상을 인지하는 무의식적인 틀을 인지구조라 할 때, 우주만물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노력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이러한 二元對立 또는 양분법은 가장 분류하고 기억하기가 쉽다. 그 중 동아시아에 퍼져 있는 陰陽思考는 단순히 양분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분이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사고이다.

周易의 繫辭上傳에 “一陰一陽之謂道”에 집약된

설명으로, “현상하는 세계는 언제나 陰陽 二氣가 서로 對立하면서도 相待해서 변화 교체하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高橋進 1988: 74). 우주 모델로서 “하늘은 위에 있어 능동적이며 땅은 밑에 있어 수동적이다. 양자는 대립하지만 대립을 통해 통일되어 있다. 幹과 坤의 대립과 통일, 이것이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라고 제시되면서 繫辭上傳이 시작된다(노태준: 1977-215).

동양에서는 서양에서처럼 아름으로서 하나의 個만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이라고 할 때 '저것'이 對待의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함이 근본적인 사유형식이었다(高橋進 1988: 73-74). 대립이 지양되었으면서도 對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道라고 보았다(김환배 1991: 87).

근본적인 사유는 認知構造가 對待로 양분되지만 시작과 종말에서 일체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다시 여기서 음양이란 '관계'의 개념이며 정적관계와 동적관계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적관계는 공간적 위계성(主從, 上下)과 시간적 연속성(前後)의 관계로, 동적 관계는 양극의 음양이 相生相剋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교호하는 것이며 여기서 음양일체의 사상이 나온다(강신표 1974: 193-94).

하나는 다른 하나의 논리적 反(안티테제)으로서 대립되었다가 은유적 방법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논리는 엄격한 서양 논리학으로 보면 허위논리이지만, 동아시아인의 인지체계상 고유한 구조적 원리이다. 서양학자들은 이를 이중구조의 변증법, 연쇄3단논법, 연합적 또는 조정적 사고라고 설명하였다(강신표 1974b: 200-3).

음양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음양은 겨울에 북쪽에서 만나 음이 성하면 양이 쇠하고, 반대로 남쪽에서 만나면 반대가 된다.

하늘의 움직임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배우는 최상 방법은 매일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양은 형편이 되고 음은 그에 따라 변형하고, 변형한 것이 다음 변형을 위한 형편이 된다.

2) 심리학자 Piaget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논의되는 구조주의 構造의 특성을 전체성, 변형, 자기조정(Self-regulation)의 세 개념으로 설명한 것과 거의 같다. (Piaget 1971: 3-16).

음양사고는 존재보다 관계의 범주에 보다 집중한다. 정적관계는 공간적 위계성(주종·상하)으로 시간적 연속성(전후)으로 요약된다.

천지는 음양인 바, 둘은 곧 하나다.

나라에서 백성은 왕에 대해 음이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양이다.

그는 음이며 동시에 양이된다.

음양은 대립하나 궁극적으로 하나가 된다.

강신표는 음양의 인지구조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언제나 나타남을 분석했다. 음양의 변증법으로 문화 기호인 '눈치'를 분석하여 관계의 극대화, 무한한 조화와 합일로서 설명하고 '글썸요'를 'Yes and No'의 논리로 설명한다(1988: 37, 102). 서양논리로서는 'Yes or No'가 아니면 허위논리가 되는 모호성을 우리 문화는 늘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本論-안팎構造

##### (1) 理論 定立

한국인의 사고체계에서 원초적인 對待的 認知構造로서의 陰陽思考가 건축공간에 '變形'되어 나타남을 '안팎構造'라 칭한다. 요약하면, 음양사고의 건축공간적 변형이다. 따라서 안팎구조에서 안과 밖은 단순히 양분되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그러하듯, 처음에는 둘로 나뉘나 서로 은유적 방법으로 통일되는 하나를 이루며, 안, 밖의 존재보다 '관계'에 더 집중하며, 관계는 공간적 위계·성과 시간적 연속성으로 요약된다.

건축 공간은 유클리드나 데카르트의 객관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되어 파악되고 분류된다. 이때 인간은 자기 몸을 바탕으로 하여 이원분류의 '몸공간용어', 즉, 앞/뒤, 위/아래, 왼쪽/오른쪽, 안/밖으로 공간을 인지한다.

그중 안과 밖은 우리 문화의 기본적인 二元分類로 우선 말 뜻 그대로 내부와 외부를 나타내지만, 여성과 남성, 중심과 주변, 부드럽고 길들여진 것과 거칠고 야생적인 구분, 인공과 자연을

은유로 표현하기도 한다. 안을 갖는 단어를 보면 안방, 안마당, 안뜰, 안채, 안사람, 안골, 안집, 안사람 등이 있고, 밖을 갖는 단어에는 바깥채, 바깥골, 바깥마당, 바깥사람, 바깥양반 등이 있다.

안과 밖은 공간인식의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된다.

안팎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우선 주거공간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거에서 안방-대청-안마당이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안방은 안사람이 거주하는, 가정생활의 중추가 되는 공간으로 가장 폐쇄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갖게 되고 집의 가장 안쪽에 두게되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은 직계가족중 원칙적으로 여성 뿐이다.

대청은 안채의 중앙에 위치하며 가족의 거실 역할 외에 각종제례가 거행되며 지역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안주인의 접객공간으로 가장 근엄하고 넓은 공간이며 안마당에서 볼 때 지붕 덮인 내부공간화하여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안마당은 사찰이나 궁궐의 중정과 같은 광장 개념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안채의 마당이면서 동시에 사랑채와도 연결된다. 실용적인 면에서 가족공용의 외부활동 공간으로서 가사작업의 중심이며 관혼상제의 식장의 기능도 가지며 신을 모시고 조상을 숭배하는 성소의 역할을 한다.

이때 안방과 대청과의 관계를 보면 안방은 안이며 대청은 밖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대청과 안마당의 관계를 보면 대청은 이번에는 안으로, 안마당은 밖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 공간을 형성시키게 된다. 대청은 안방에 대해서 '밖'이나 안마당에 대해서는 '안'인, '밖'이며 동시에 '안'인 공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마당은 대청에 대해서 '밖'이며 바깥마당에 대해서는 '안'인 것이다. 앞서 3-(2)에서 본 對待的 인지구조에서 처음에 왕에 대해 백성은 음이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양이되는 음이면서 동시에 양이되는 서양논리상 허위인, 독특한 사고 양태가 전개되는 것이다. 음과 양이 단순히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음을 낳고 다시 그 음이 양이 된다. 하나가 형판(template)이 되고 또다른 하나가 변

	안방	대청	안마당
공간꾸밈	사면과 천정 흰색한지 마감 단순	구조재 노출 연등천정 거치른 마감	천정 없이 풀림 그러나, 4외벽면으로 둘러싸고 처마가 4면에서 빠져나와 위에 구멍 뚫린 외부공간
바닥마감	온돌장판	마루	흙바닥. 마당이 정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말끔 히 치워진 활동을 위한 빈 공간
조도, 외기	극히 어두움 반투과 창호지 채광	트인 전면으로만 채광	바람이 거의 통하지 않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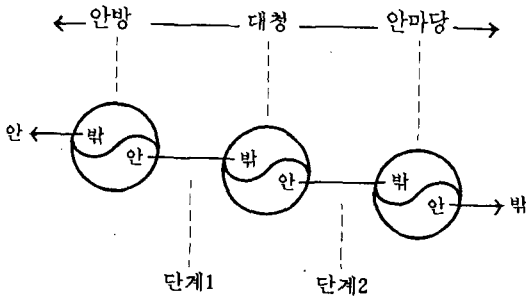


그림1 안방-대청-안마당 연속로 본 안팎구조

환(transformation) 되고 다시 변환된 것이 다음 것의 형편이 되는 구조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위와 같다. (그림1)

각 구획의 공간의 형태와 의장을 살펴 보면, 안방은 대낮에도 킁킁할 정도로 빛이 잘 안들어

오는 경우가 허다하며, 4벽면과 천정을 흰색 한 지로 단정하게 마감하고 바닥은 온돌 구들장 위에 장판 마감한 반면 대청을 대들보, 서까래의 구조가 노출되는 거칠은 연등천정으로 처리를 하였고 바닥은 마루로서 마감되어 있다. 또 대청은 앞면이 외기에 완전히 열려 있음으로 인하여(혹 분합문이 있어도 들쇠에 걸면 완전히 개방됨) 서양의 공간 분류상 단순히 내부공간(interior space)이라고 부르기 곤란한 외부공간에 가까운 내부공간이다.

각 구획을 구분하는 단계는 안과밖을 차별하고 열고 닫는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가 있다. 문지방을 두어 격리를 피하거나 분합문을 전부 들쇠에 걸어 두 공간을 연결 마루와 장판 발바닥 촉감의 차이를 두어 각 단계 별로 속한 안은 안답게, 밖은 밖답게 꾸민다. 안마당과 대청 사이의 단계에는 처마밑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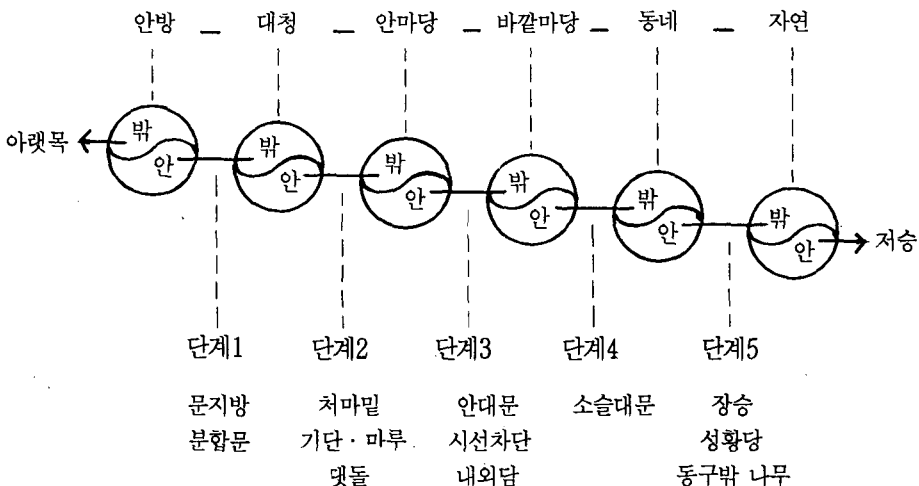


그림2 안방에서 자연까지 안팎구조의 연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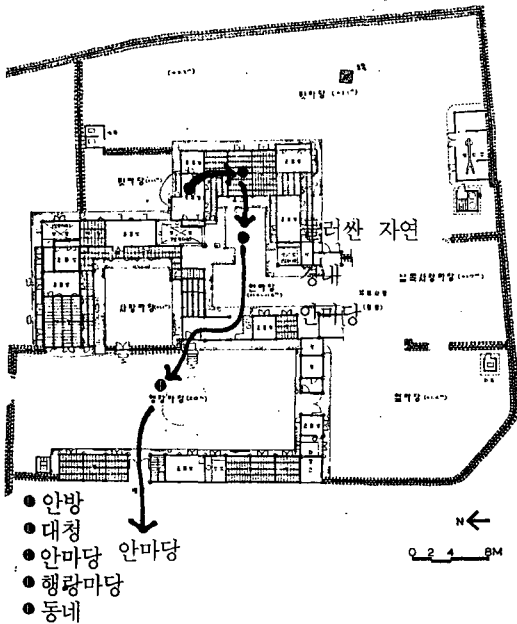


그림3 평면도상의 안팎연쇄

자료: 번남대, 의인 십마를 실측보고서, 울산공대, 1976

높은 기단이 있으며, 신발을 벗고 올라감으로서 밖과 안을 구분한다. 이 공간은 다시 퇴간과 마루를 덧붙여 독립공간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밖에서 안으로의 공간은 여러 단계로 더 구체되고 나누어지며 세부 단계별로 밖의 성질이 점차 감소하고 안의 성질이 증가하게 꾸며지며, 거주자의 행태도 그에 맞추어 일어난다.

이에 음양사고에서의 각 단계별 위계성과 연속성이 공간상에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난다. 안방에서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hidden dimension) 아랫목, 상좌가 다시 안으로 존재한다. 안마당을 바깥마당(사랑마당, 행랑마당으로 다시 나뉘기도 함)에 대해 안이 되며, 바깥마당은 동네에 대해서는 안이 된다.

안방-대청-안마당-바깥마당-동네-자연의 연쇄를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동네는 마을안으로 들어가 타작마당이나 공동우물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동의 안'을 형성하거나 자연부락에서 흔히 보는 안골/바깥골로 나누어 단계를 더 세분할 수도 있다. 또한 개개 집에

대해서는 밖인 마을이 자연부락이 개울줄기를 따라 산으로 둘러싼 지형 속으로 들어감으로서 마을 전체가 둘러싸인 자연에 대해 다시 안으로 된다.

둘러싼 자연을 넘어서, 이세상과 다른 저세상을 생각할 수 있다. 유한존재인 인간의 죽은 후 세계는 다른 곳, 다른 시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밖'의 세계로 생각할 수 있다. 장례식이란 저승으로 가면서 이승과의 연을 끊는 통과례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에서 집의 안방까지 연속적으로 안의 겹을 만들어 나가는 한국의 建築空間構造의 특성을 對待的 認知構造로서의 陰陽思考와 대응 비교하여 '같다'고 하는 것은 구조주의에서 同型化(isomorphism)로서 가능하다.

## (2) 展開

이상에서 안팎구조를 통하여 '연속 안 만들기'가 성립하게 되며 동심원적 공간이 형성된다. 이는 겹겹으로 된 '양과겹질 공간'이 되며 가장 중심되는 안이 존재하는 '중심핵 구조'를 이루게 된다. 건축공간에서 이는 '모심'(위계성)과 '지킴'(방어)과 잘 맞아 떨어진다. 모심을 위하여 권위를 점차 높여들어가기도 하며, 속세의 때를 한겨울 풀썩 벗기며 들어가기도 하게 된다. 또한 외부를 향해 지킴을 위하여 겹겹의 담을 쌓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안팎구조는 3차원 공간의 실재보다 '안'과 '다음 단계의 안'인 '밖'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담을 통한 차단 속에서 '관계'의 문을 통과하게 된다. 문은 물적차단을 가져오는 실제적인 문일 수도 있고 금지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상징적인 문일 수도 있다.

안/밖의 구분에서 '다음 단계의 안'은 '그 전 단계의 안'에 비해 명백히 '밖'으로 보이게 모든 부분을 꾸민다. 두 단계의 안/밖에서 안은 안답게, 밖은 밖답게 건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순서는 결코 바뀌어 나타날 수가 없다. 때로는 서양 공간 개념으로 볼 때 하나의 공간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보이지 않는 차원' 속에 '또하나의 안'이 존재할 수도 있다.

안/밖의 구분은 글자 그대로는 내부/외부를 지칭하는 구분이나 주거에서 남/녀를 구분하고 가

족내부/외부인을 구분하고 주인/하인을 구분하는 몇 개의 축으로 된 구분을 교묘히 서로 분할하여 영역을 나누게 된다. 기존 채와 담으로 남녀의 구분이 불충분할 때 내외담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안팎구조는 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건축 공간의 기본입자가 되는 안마당은 불교 사찰, 궁궐, 유교서원에서조차 주거와 꼭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불교사찰에서 초기의 탑을 모심을 위하여 접을 만들었던 회랑의 담은 후기 선종의 영향으로 산지사찰로 들어가면서 없어지지만, 풍수와 연관되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의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둘러싼 산줄기 안에 경내가 형성되며 그 안에 4채의 건물로 안마당을 만든다(보통 대웅전-문루-부속전각-요사체). 마치 주거에서 안마당에 대청마루가 무대가 되듯, 대웅전이 상좌 무대가 된다. 안마당은 대웅전에서 보면 밖이지만 경내에서 보면 '안'인, '밖'이면서 동시에 '안'인 공간이 된다(그림4). 불교 초기 불상만을 모셨을 때에는 대웅전이 안으로 머물렀겠지만 신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불상이 내부공간 중앙에서 뒤로 후퇴하게 되면서 '안의 안'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셔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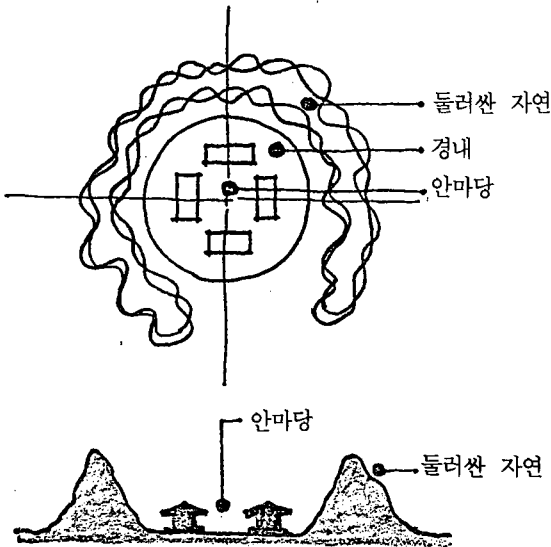


그림4 연속 안으로서의 자연-경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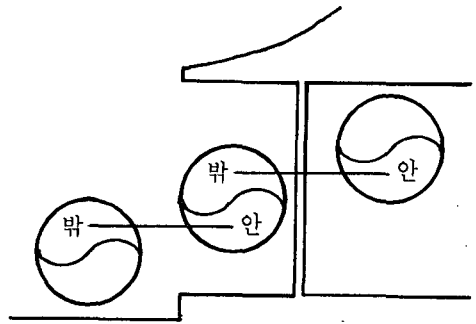


그림5 처마밑 공간의 안팎구조적 해석

궁궐의 어좌와 정전과 마당, 서원의 강당대청과 마당 모든 것은 같은 안팎연쇄구조이다. 안팎구조는 한국건축공간에서 건물 유형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구조이다.

다음 안팎구조를 보강하는 건축적인 장치가 반드시 있게 된다. 먼저 전후공간을 연결 또는 차단시켜주는 관계의 문이다. 소슬대문-중문-안대문으로, 또 들어가지 못하는 구중궁궐로, 또 일주문-천왕문-불이문-해탈문으로 속세의 때를 벗겨내는 문으로 된다. 때로는 상징적인 문으로서 동구밖 장승, 큰바위, 큰나무로 나타나기도 하며 새끼줄에 고추, 숯, 종이를 매단 금줄로 보호하기도 하며, 제주도의 정랑과 같이 세 개의 통나무를 기호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은 '깊은 처마밑'을 들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구획된 대상보다 그 사이의 '관계'의 처마밑이 된다. 처마밑은 마당에서 보면 '안', 방에서 보면 '밖'인 '안이면서 동시에 밖'인 공간이 된다(그림5)

이 처마밑은 보통 기단을 높여서 공간의 독립성이 더 보강되며 이에 퇴간을 붙여 뒷마루를 놓으면 더욱 독립된다. 뒷마루는 외기와 터져있어서 외부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안의' 성질을 보강한다. 그 사이에 관계의 문인 신발을 벗고 신는 '덧들'을 경유하게 된다.

마루는 '안이면서 밖'인 공간성질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한다. 밖손님이 오면 마루에 걸터앉아 일을 보게 된다. 안에 침입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문전박대를 당하지도 않은 양쪽을 그런대로 모

두 만족시키는 우리의 심성에 부합하는 공간인 셈이다.

문도 처음부터 공간의 개방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웅전 앞문이 분합틀문으로되어 안마당과 동일공간화되며, 주로 사랑대청에서 방과 대청을 나누는 문이 전부 제거되고 기둥만 남게 된다. 공간 통합장치로 분합틀문이 있는 반면, 이동식 공간 분리 장치로 병풍, 발이 발달하게 된다. 또 고정식 시선차단장치로 안마당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안대문을 열면 가림판으로 막히고 옆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내외담을 만든다. 신발 신고 벗음이 공간의 접을 더욱 보강함은 보았으되 신발 벗고의 감촉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찬 마루 바닥과 온돌 장판 바닥 사이에 안과 밖의 구분이 분명히 나뉘게 된다.

(3) 韓國建築空間 特性的 再解析

한국건축공간의 특성을 보통 자연과의 조화, 공간의 연속성과 위계성, 내외부공간의 상호침투로 든다. 먼저 '자연과의 조화'를 陰陽의 思考로 보자. "이 우주에는 음과 양이란 두가지 기운이 충만하여 있으며 그것이 인간세계 구성구석까지 퍼져 급기야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는 '필연적인 감응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노태준 1977 : 404). 對待的 認知構造로 보면, 인간과 자연은 처음엔 양분되어 대립하나 다음 단계에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어 인간이 곧 자연이 되는 일체의 사상인, 안팎구조로 간결하게 해석할수 있다. (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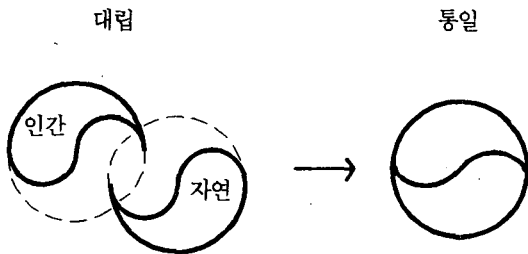


그림6 자연과 조화의 안팎구조 해석

다음 공간이 계층적 질서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로의 연속성을 이루며 변화해 나가는 구성을 이루는 위계성과 연속성을 보자. 진입공간-부공간-주공간 등으로 표현되는 위계성과 연속성은 다름 아닌 음과 양의 사고로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 정지된 단계보다는 그 사이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까닭에 자연히 시간적 전후관계의 연속성을 갖게 되며 더 깊은 곳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종관계의 위계성을 이루게 된다.

건물이 자연으로 확산되려는 생각과 다음단계의 밖의 공간과 연결되려는 생각들이 두 전후 단계의 공간을 서로 섞이게 만든다. 서양건축에서의 '내부공간'이나 '외부공간'의 구획된 대상보다 그사이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음양사고의 특성에 따라 안팎구조로 설명된다. 앞서 본바와 같이 깊은 처마나 전면이 개방된 대청, 위에 구멍 뚫린 안마당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섞이게 만든다. 내외부 두 공간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는 관계의 공간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적 공간의 설계를 위하여서는 서양용어인 '내부공간' '외부공간'의 용어를 버려야 하며, 오히려 '내외부 공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建築空間論에서의 안팎構造 空間論

동양에서는 空, 虛, 無라는 개념은 존재하였으나 서양에서 처럼 3차원 입방체의 볼륨을 지칭하는 'space'에 해당하는 개념과 말은 없었다. 공간은 구체적 대상물이 아니므로 문화에 따라 전혀 그러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주류 건축학에서 다루어지는 서양 건축 공간은 3차원 입방체 물적공간으로 요약할수있다.

건축공간은 건축물의 천정, 바닥과 4벽면으로 둘러쌓인 한정된 입방체를 지칭하게 되며, 모든 것을 건물 내부에 수용하게 되며 건물 밖은 안과 뚜렷이 구분, 차단된다. 밖은 외기에 트인 외부공간이 되며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근대건축 시기에 들어와서야 내부와 외부가 서로 교통하게 되는 바, 이 새로운 시도를 Giedion와 Zevi는 내외부 상호관입의 시대로 명명한다(Giedion 1967

: lvi). 그들은 서구건축역사를 공간 3단계설로 표현하여 입체조각시대를 거쳐 내부공간시대 다음의 마지막 시대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신기한 현상의 서술에 불과하였고 Zevi가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에서 서술한 것처럼(1978 : 32-36) 근대건축이 되기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던 것이 아니며, 근대건축의 벽체가 언제나 자유롭게 해체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양에서 마지막 발전 단계로 보았던 근대건축 공간이 동양에선 원래부터 이미 그리되어 있었다.

소위 새로운 공간개념 창시자인 Mies의 바르세로나 박람회 독일관 건물이 모든 기록에 '사람의 활동이 짝하지 않음'을 Bonta는 언급하고 있다(1979 : 203-04). 역시 상호관입 공간도 결국 물적 대상으로 하나의 조각적인 공간으로 된다.

근대건축의 무미건조한 균질적, 객관적, 물적 공간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을 중심으로한 공간이론들이 등장한다.

위상수학 개념으로 심리학자 Piaget는 어린이의 실험을 통하여 유클리드 공간보다 근접, 분리, 폐쇄, 순서, 연속, 승계 등이 더 원초적인 공간개념임을 밝혀낸다(Piaget 1971 : 6-10). 이는 Schulz에 영향을 주어 중심과 진입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며 Genius Loci라는 장소의 이론을 제시한다(1980 : 5-17). 무언가가 벌어지는, 의미 있는, 기억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Ashihara는 인간척도를 바탕으로 팽팽한 양공간, 허전한 음공간의 개념을 만들어내어 음(-), 양(+)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1979 : 28-35) 본 인지구조로서 음, 양 사고의 안팎의 변증법적 연쇄구조와는 별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이 바로 안팎구조 이해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다.<sup>3)</sup> 근대건축 공간이론에서 진일보 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3) 안과 밖을 굳이 기호처리할 때, 안팎구조에서는 '안'을 '-'로 '밖'을 '+'로 본것이 아니라(이강훈 1989 : 29, 31), 하나의 '안'이 '밖'에 대해서는 '-'이지만 그 전단계의 '안'에 대해서는 '+'가 된다는 것이다. 즉 안은 '-'이면서 동시에 '+'가 된다는 것이 안팎구조의 요체이다.

한국건축 공간론은 편향된 자료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서구의 주류 건축학을 (주로 성당건축) 벗어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세계의 여러 토속 건축에서 공간을 비교하여 공간인식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건축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길이된다.<sup>4)</sup> Schulz와 같이 '공간에서 장소를' 주장하는 Tuan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체험을 강조하며 '인지구조'를 찾으므로서 단편적 공간론에서 벗어나고 있다(1977 : 34-50).

안팎구조는 건축공간구조를 우리의 인지구조와 연관시킨 것이다. '인지구조'는 현재의 '행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예를 하나 들면 현대 아파트에서 공간의 겹이 없어짐에 따라 현관문을 열고 부엌이 바로 시각 노출되는 바를 건축가들은 별로 알지 못하고 있으나, 거주자는 심각히 느껴서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부엌에 주름문, 커튼 심지어는 싱크대만이라도 가리는 커튼을 부착하여 일종의 가림벽 또는 내외담을 설치한다. 이는 변화된 행태에 대해 변화되지않은 인지구조가 저항하여 물적장치를 변경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 (5) 안팎構造 발생의 副次的 解析

안팎구조의 공간이 형성된 원인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자.

풍수지리에서 조산, 주산, 내외청룡, 내외백호, 안산으로 둘러쌓인 산세의 겹 속의 명당, 혈은 안팎구조에서의 동심원적 연속 안 만들기과 유사하다. 중요 건물은 풍수가 공식으로 작용하였겠으나 보편적인 건축 조성에서는 안팎의 인지구조가 우선하였을 것이며, 반대로 풍수의 공간구성 원리는 사람들의 인지구조를 보완 강화하였을 것이다.

다음 노년기 지형인 우리나라는 넓은 평야 보다는 산맥과 낮은 구릉이 발달하였다. 우리의 마을은 그 사이의 개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자리

4) 인도네시아 Atoni 부족의 주거공간은 정확히 그들의 공간 인지 체계를 반영하여주고(Clark Cunningham글, 이희봉 1978 : 60-64), Hopi 인디안의 주거는 공간 개념과 그 지칭용어가 없음을 보여준다(Benjamin Lee Whorf글, 이상해 1992 : 277).



잡아, 안골 속에 들어가 은폐하면서 바깥세상을 내다보면서 살아갔다. 자연의 지형이 공간의 겹을 만들기 적합하여서 인지구조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후상으로 보아 서양의 주류 건축학 발생지는 북구계열(앵글로 색슨, 게르만 등)의 추운 지방이므로 모든 활동이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집 밖은 가혹한 외부공간이 되고 내부공간은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겨울 계절의 공간사용방법이나 북쪽지방(이를 테면 태백산맥 대의 양통집)의 공간이용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비교적 따뜻한 3계절은 밖으로 열리게 된다. 라틴계의 남구(주로, 이태리)를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당이 중요시 되며 안이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된다.

역사적으로 서양건축의 구조체는 주로 조적조이므로 개구부를 크게 낼 수 없는 반면 동양건축은 목조가구식이라서 기둥만 남기고 모든 벽은 해체할 수가 있었다. 조적조에서는 안과 밖이 분명히 차단되지만, 목조에서는 안이 밖으로 밖이 안으로 상호관입이 가능하며 가변적 장치를 만들기도 훨씬 용이하다.

## 5. 結論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문화의 주요 조직원리인,

음과 양이 대립하여 변증법적으로 조화 통일되는 대대적 인지구조의 음양사고를, 건축에서 연속적으로 안의 겹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의 구조와 대응시켜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즉, 음양의 건축공간적 변형인 “안팎구조”가 성립함을 보았다.

끝으로 안팎구조의 구분되는 특성을 오해되지 않도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건축공간에서는 수학 물리학에서와 같은 3차원 객관적 공간과는 달리 인지하기 가장 쉬운 이원대립의 몸공간용어인 안과 밖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을 물적 형태로 보아 음공간, 양공간으로 구분한다든가, 마당과 진입단계의 겹을 찾는 유형학적 태도와는 다른, 인간이 집단의 문화의 중심이 되어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주의 특성상 기호관별로 시작하여 문화요소간의 변형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즉, 사고-관습-언어-행위-주거-복식으로 연결되는 보편적 조직원리를.

과거의 형태연구에 치우친 순수역사 연구는 상황이 변화된 현재와 단절될 가능성이 큰 반면, 안팎구조와 같은 문화핵심구조를 발견함으로써 형태연구를 통하여 현재에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설계를 통하여 창작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희봉, 1978. 한국건축에 기호학적 구조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1992. “한국건축역사 연구의 비관과 방향모색” 『건축역사연구』 1권 1호.
- 김방한, 1975, 「언어학 논고」 서울대출판
- 강신표, 1974, “동아세아에 있어서 한국문화” 『문화인류학』 6집, 문화 인류학회  
 , 1974b, “The Structural Principle of the Chinese World View” in 『Uncon-scious in Culture』 Inc. Rossi(ed.) New York, E. P. Dutton & Co.  
 , 1988. 「한국문화 연구」 현암사
- 김택규, 1975, “한국의 혈연관습에 대한 고찰(1)-가족 및 동성집단의 민족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동양 문화』 16집, 영남대 동양문화 연구소 김환배, 1991, 「노자철학의 연구」 사사연
- 이상해, 1992. “정주체계에 관한비교문화적 해석을 통해본 건축이론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권 1호.
- 이강훈, 1989, “한국건축에 있어서 음양공간의 질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高橋進, 1988, “중국문화의 특성” 도광순 편, 『동아시아 문화와 한국문화』 교문사
- 노태준 편역, 1977, 「주역」 홍보문화사
- 金原省吾, 1932, 「동양미학」 동경, 고금서원
- Ashihara, Yoshinobu, 1979, 「건축의 외부공간」 김정동 역, 기문당
- Piaget, Jean, 1971, 『Structualism』 London : RKP Co.  
 , 1971, Child’s Conception of Space.  
 Schulz, C-N.1980, Genius Loci. London :Academy Editions  
 , 1971, Existence, Space & Architecture. London : Studio Vista
- Tuan, Yi-Fu,1977, Space & Place. Minneapolis : U. of Minnesota Press
- Giedion Sigfried.1967, Space, Time & Architectur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Zevi, Bruno.1957, Architecture as Space. NewYork :Horizon Press  
 , 1978,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Seattle :U. of Washington Press
- Bonta, Juan.1979,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New York : Rizzoli  
 Rossi, Ino. 1974, The Unconscious in Culture. New York : E. P. Dutton.
- Maranda, Pierre, 1972, “The Sturcturalism in Cultural Anthropology”,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
- Tyler, Stephen, 1969. Cognitive Anthrop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Levi-Strauss, Claude, 1967.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 Anchor Book
- Leach, Edmund, 1970. Claude, Levi-Strauss. New York : Viking press

# The In/Out Structure :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Architectural Space by Structuralism

Lee, Hee Bong

(Chung A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The binary classification, Yin & Yang, can be shown in our culture. Yin & Yang thinking reveals the Up/Down(Principal/Subordinate) relation in space, and Before/After relation in time, and it shows the sequence of Contrast→Reconciliation & Unification→Contrast. For example, a follower is Yin against King, while Yang as a father against his son in our traditional cognitive structure.

With Left/Right, Front/Rear, and Upper/Lower, In/Out division is a basic body-space term to grasp the space position.

In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when we go out from the deepest 'In', Anbang to Daechung, we may call Anbang 'In' and Daechung 'Out'. When from Daechung to Anmadang reversely, we call Daechung 'In' and Anmadang 'Out'. Namely, Daechung is both 'In' and 'Out'. This is a fallacy logic in view of western basic conception. "The In/Out Structure, system of a series of inner spaces, is defined as a transformation of cognitive structure of Yin & Yang thinking to the Korean architectural space. The space structure is one of the important deep structure in Korean society."

The concept of the space structure, apperred in east Asia, can make humane space, for it is not a physical 'type' of typepology but related to cognitive structure of human thinking. The structure is applicable to space design in modern society, for the cognitive structure exists in living culture by transformation.